도전! 전국체전 볼링 종합우승

스포츠 포커스

창단 두돌… 광주 벨인퍼컴 여자볼링팀

조종국 대표이사의 '광주볼링 사랑'

실업팀 없어 체전서 볼링점수 '0'

국가대표 등 우수볼러 6인 영입

전국 최고 대우로 최강 전력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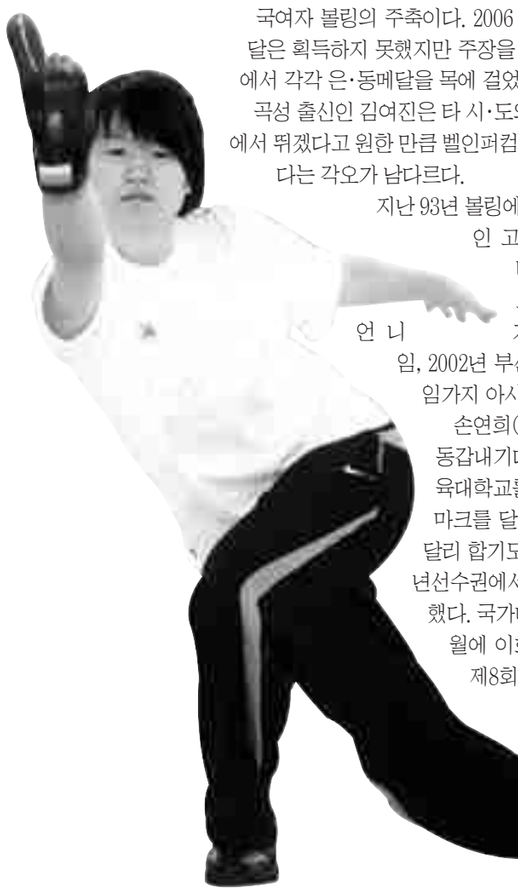
'전국최고! 최강을 지향한다'

광주 벨인퍼컴 여자 볼링팀의 2007년 각오다. 창단 두 돌 밖에 지나지 않은 광주 벨인퍼컴 여자 볼링팀이 전국최고 팀과 전국최강을 욕심낸 데는 이유가 있다.

올 해 입단한 선수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과장된 목표가 아니다. 주장 김여진과 강혜은은 현 국가대표, 손연희는 국가대표 상비군이며 홍수연, 윤희여, 이나영은 청소년대표 출신이다. 6명의 선수가 15파운드 볼을 사용하고 구질도 똑같은 숏훅.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3·5인조전에서 호흡을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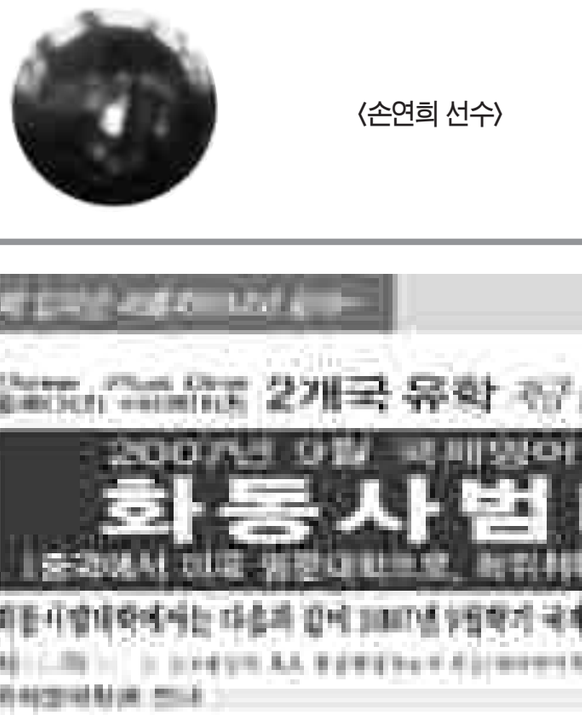
주장을 맡고 있는 김여진(28)은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은 한국여자 볼링의 주축이다.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목표인 금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며 3인조, 5인조전에서 각각 은·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곡성 출신인 김여진은 타 시·도의 스카우트 손길을 뿌리치고 고향에서 뛰겠다고 원한 만큼 벨인퍼컴을 전국최고의 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 93년 볼링에 입문한 김여진은 볼링입문 3년만인 고1때 청소년대표, 고교 2학년때부터는 줄곧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으며 어느덧 실업6년차 대표팀 맏언니가 됐다. 지난 98년 방콕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6 도하아시안게임가지 아시안 게임에는 3번이나 출전했다.

손연희(22)와 강혜은(22), 홍수연(22)은 동갑내기다. 충남 출신인 강혜은은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2005년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침착하고 곱상한 외모와 달리 합기도가 공인 2단. 지난해 아시아 청소년선수권에서 2인조, 4인조전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낸 손연희는 올 2월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다. 지난해 제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볼링대회 개인종합 1위와 마스터즈 3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국내외 대회를 석권하고 있다.



〈손연희 선수〉

올 2월 한국체육대학 졸업예정인 홍수연도 지난해 제2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볼링대회 2·3인조전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오는 2월 청소년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는 윤희여(21)와 이나영(20)은 각각 경희대학교와 경기 부천대학 생활스포츠과에 재학중인 학생.

윤희여는 지난해 제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마스터즈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기량이 쑥쑥 늘고 있는 기대주.

팀 막내인 이나영은 대전출신이다. 밸런스 테이핑 2급 자격증과 농구 심판 3급 자격증도 갖고 있다. 또 응급처치법 일반과정을 수료해 준비된 생활체육지도자.

이들 6명 모두 광주가 처음이다. 그렇지만 광주가 낯설지 않다.

조종국(48) 광주볼링협회 부회장이자 벨인퍼컴 대표이사가 타지임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 2005년 광주에 여자 실업볼링팀이 없어 전국체전에서 단 1점의 점수도 획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벨인퍼컴 여자볼링팀을 창단했다.

창단시기가 늦어 지난해에는 우수선수 수급이 여의치 않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조 대표는 좋은 팀은 우수선수 영입에 있다고 결심하고 평소 눈여겨 봤던 우수 선수들을 모두 스카우트 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평소 인맥과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선수들을 데려왔다.

우선 훈련장인 북구 텐핀 볼링장 인근인 용봉동 쌍용아파트 60평대에 2인 1실의 합숙소를 마련했다. 각 방에는 인터넷 설비가 갖춰져 있어 개인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배려했다. 이동 수단은 연애인들이 애용하는 스타크래프트. 훈련복, 경기복, 신발등은 타 팀에서 흉내내지 못할 정도의 최고의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이같은 최고 대우로 인해 벨인퍼컴은 여자볼링 선수들이 가장 입단하고 싶은 실업팀으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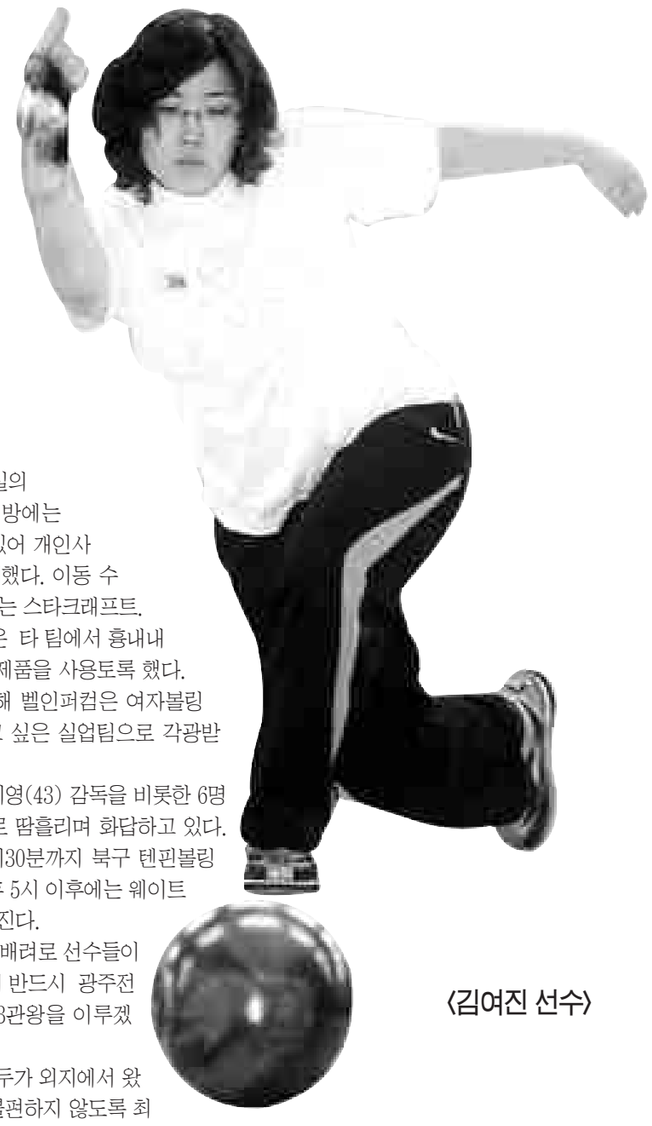
조 대표의 배려에 이지영(43) 감독을 비롯한 6명의 선수들도 한 마음으로 땀흘리며 화답하고 있다.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까지 북구 텐핀볼링장에서 실전연습을 한 후 5시 이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체력을 다진다.

이 감독은 "조 대표의 배려로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 반드시 광주전국체전 우승을 비롯한 3관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선수들 모두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합숙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며 "오로지 경기에만 전념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올 광주 전국체전에서 여자볼링 종합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6인의 볼러들이 한 마음으로 던지는 15파운드의 볼에 실린 땀과 노력은 "스트라이크" 소리로 메아리 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여진 선수〉

"광주의 명예를 걸고"

전국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광주벨인퍼컴 여자 볼링팀이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우승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종국 대표, 김여진, 이나영, 윤희여, 강혜은, 홍수연, 손연희 선수, 이지영 감독(좌로부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